

무악도(舞樂圖)

군대의 행렬처럼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주인공이 살아 있을 당시 중요한 행사의 한 장면을 그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각양각색의 깃발을 든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수레를 탄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무덤의 주인공으로 추정된다.

안악 3호분

안악 3호분은 황해남도 안악읍에서 약 7km 가량 떨어진 용순군 유설리 대지형의 구릉 서편 끝 등마루에 위치해 있다. 3호분은 남북 33m, 동서 30m이며, 높이는 지평선에서 봉정까지 약 6m 정도다. 지금까지 왕릉으로 알려진 고구려 무덤 벽화 중에서 규모나 벽화내용의 풍부성이 단연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진시황의 지하궁전을 방불케하는 스케일과 4세기 동방문화를 대표하는 고구려의 힘과 뛰어난 문화를 과시한 이 무덤은 고구려 사회의 모습과 생활상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다.

무덤의 앞칸에는 무덤의 주인인 고구려 국왕의 실내생활을 그려 놓았다. 옆에 있는 신하, 관리들보다는 몇 배나 크게 벽면의 한가운데 그려진 왕은 화려한 방안에서 관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채 털부채를 쥐고 거만하게 앉아 있다. 그가 쓴 모자와 옷은 고구려왕이 썼다고 하는 백라관과 오채의복이다. 왕의 왼쪽에는 한 손에 흰 홀을 잡고, 다른 손에 붓을 들고 공손히 왕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관리와 두 손으로 홀을 잡고 있는 여인이, 오른쪽에는 줄을 치고 글을 쓴 종이를 두 손으로 펼쳐든 사람과 홀을 잡고 선 사람이 그려져 있다. 남쪽벽에는 왕후를 그렸는데, 왕후는 구름무늬 같은 무늬를 놓은 긴 저고리와 잔주름을 잡은 긴 치마를 입었다.

이밖에 국왕과 왕후를 호위하는 무관들이 앞칸 서쪽벽면에 그려져 있다. 국왕과 왕후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복식과 시종드는 많은 측근들의 모습을 통해 고구려 시대 궁중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앞칸 동쪽벽에는 씨름하는 장면을, 동쪽 곁칸에는 발방아간·용드레우물·부엌·육고·차고·외양간 등을 그렸다. 거기에는 소반·접시·시루·물동이·항아리 등 그릇들과 여자들이 발방아를 찧고 키질과 설거지를 하는 모습 등 고구려인들의 생활풍속이 잘 묘사돼 있다.

안칸 동쪽과 북쪽을 돌아가는 회랑에는 큰 행렬도가 있다. 주인공의 행차를 중심에 놓고 그린 이 벽화는 규모가 크고 화려한데, 당시 왕의 거대한 행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250명이 넘는 등장인물들을 세밀하게 묘사 한 대작으로 손꼽힌다.

안악 3호분 벽화에 등장하는 중장기병은 거의 대부분 철제 찰갑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장기병은 대부분 창을 들고 있으며,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적어도 벽화로만 본다면 고구려의 중장기병은 창을 주무기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군사강국 고구려의 실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안악 3호분 행렬도는 단순한 왕의 행렬도라기보다는 원정을 떠나기 위해 출전하고 있는 고구려군의 퍼레이드를 연상케 한다